

발표일 : 2016년 5월 31일

최근 6년간(2011~2015년) 6월 상순과 중순에는 전해상에서 파고가 낮았음. 하순에는 남해서부해상과 남해동부해상, 제주도해상에서 파고가 약간 높았으며, 그 밖의 전 해상에서 파고가 낮았음.

해양기상

- 최근 5년간(2011~2015년) 6월 상순과 중순에는 서해해상(덕적도, 외연도, 칠발도), 남해 및 제주도해상(거문도, 거제도, 마라도), 동해해상(동해, 울릉도, 포항)에서 파고가 낮았음. 하순에는 남해서부해상(거문도)과 남해동부해상(거제도), 제주도해상(마라도)에서 파고가 약간 높았으나, 서해해상(덕적도, 외연도, 칠발도)과 동해해상(동해, 울릉도, 포항)에서 파고가 낮았음.

※ 해상 정보는 해역별 최근 5년(2011~2015년) 평균 유의파고의 순별 평균값

※ 물결이 낮음(1.0m 미만), 약간 높음(1.0~2.0m 미만), 높음(2.0~3.0m 미만), 매우 높음(3.0m 이상)

- 서해안의 인천은 6월 6일에 943 cm의 고극조위가 나타나며, 남해안의 완도는 6월 5일에 404 cm, 동해안의 포항은 6월 7·8일에 49 cm의 고극조위가 나타나겠음

해양안전

- 본격적인 행락철로 다수 시민이 승선한 여객선, 유·도선 안전운항
- 본격적인 성어기로 출항전 기관 및 선체의 정밀 점검·정비 후 출항
- 짙은 안개로 시야 확보 곤란 및 줄음운항 사고 예방을 위해 출어 및 조업 시 충분히 휴식(견시 철저)
- 1인 조업선은 안전조업을 위해 가급적 선단선 편성
- 침수 및 충돌사고에 특히 주의

어업기상

- 6월의 연안 수온은 동해가 15~21℃ 분포, 남해 18~22℃ 분포, 서해 18~24℃ 분포로 동·서·남해 모두 평년에 비해 1℃ 내외의 고온현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 예상 수온은 동해 : 15~21℃, 남해 : 18~22℃, 서해 : 18~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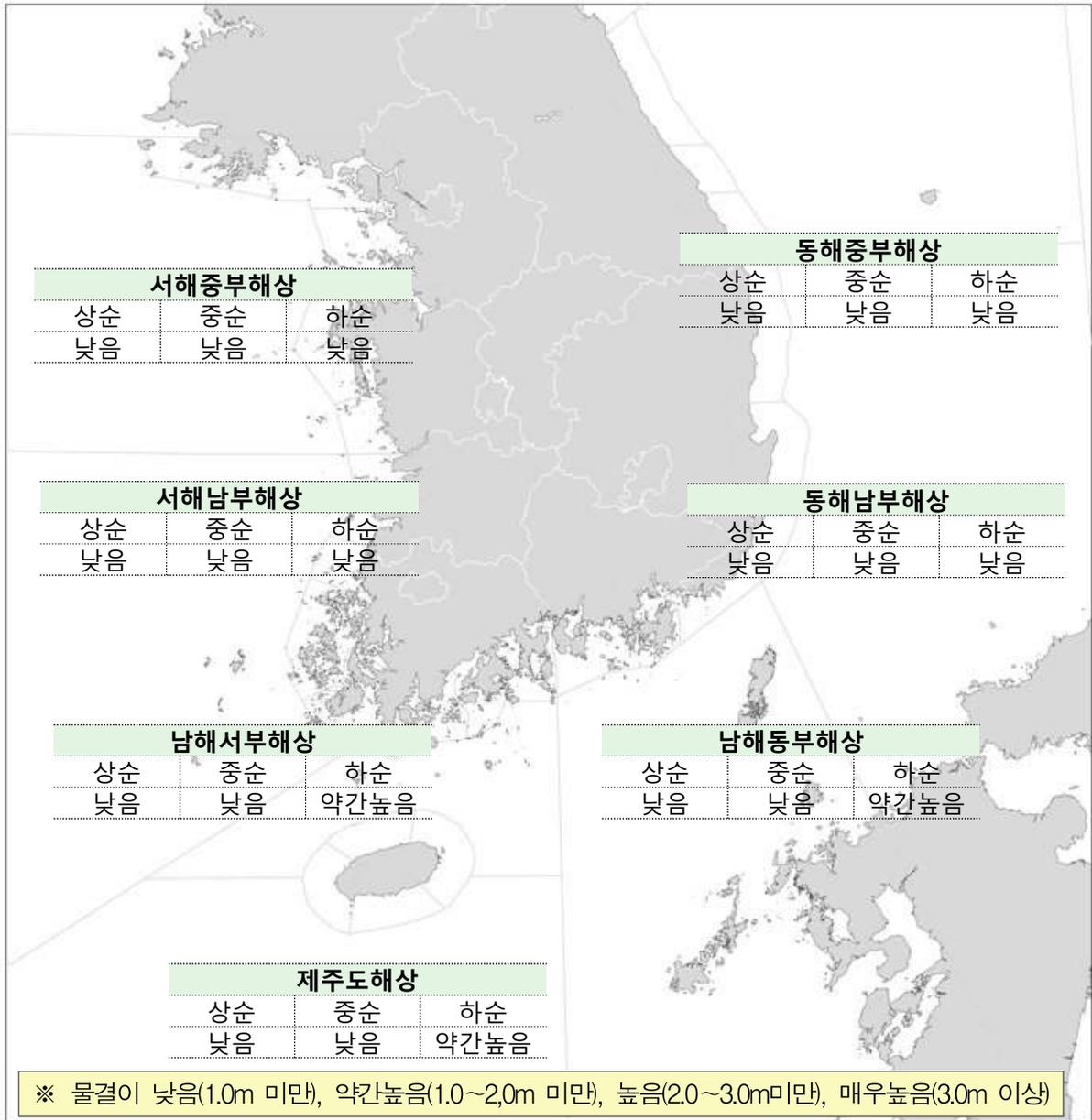
자료협조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국립수산물과학원, 국립해양조사원, 해양안전심판원



해황

해황

▶ 6월의 해상 정보



※ 해상 정보는 해역별 최근 5년(2011~2015년) 평균 유의파고의 순별 평균값

▶ 최근 5년간('11~'15년) 6월 파고 관측값 통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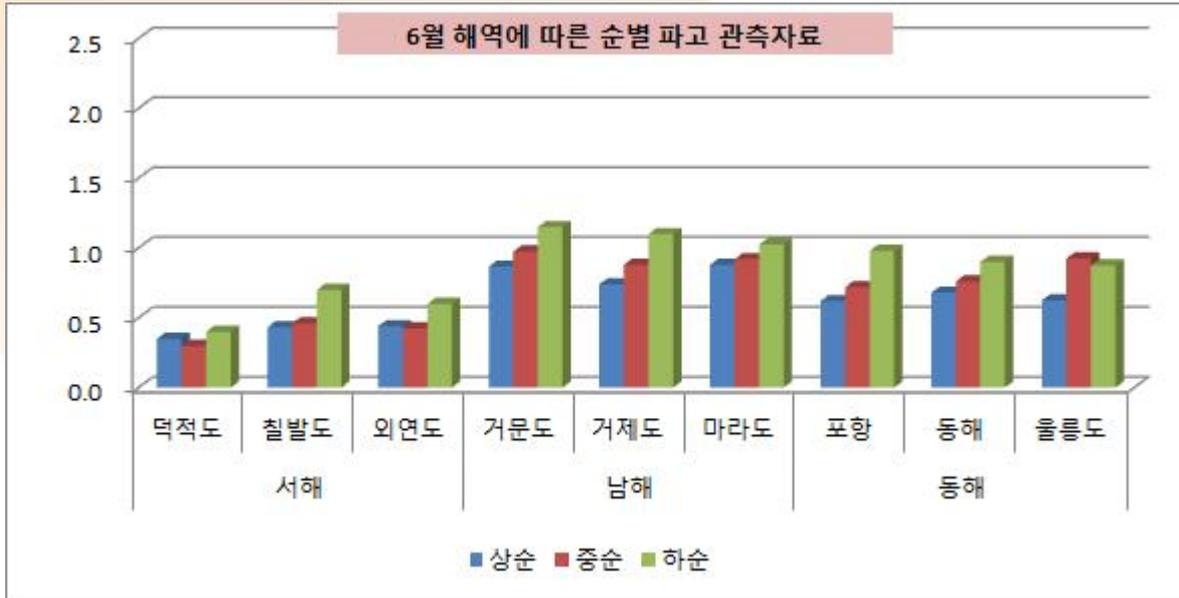


그림 1. 최근 5년간(2011 ~ 2015년) 6월 순별 파고 관측값

최근 5년간(2011년 ~ 2015년) 6월의 해역에 따른 해양기상부이의 파고관측 자료를 살펴보면, 6월 상순과 중순에는 서해해상(덕적도, 외연도, 칠발도), 남해 및 제주도해상(거문도, 거제도, 마라도), 동해해상(동해, 울릉도, 포항)에서 파고가 낮았음. 하순에는 남해서부해상(거문도)과 남해동부해상(거제도), 제주도해상(마라도)에서 파고가 약간 높았으나, 서해해상(덕적도, 외연도, 칠발도)과 동해해상(동해, 울릉도, 포항)에서 파고가 낮았음. 6월에 파고가 가장 높았던 곳은 남해서부해상(거문도)에서 1.15m(하순)이었고, 다음으로 파고가 높았던 곳은 남해동부해상(거제도)에서 1.10m(하순)이었음.(그림 1)

※ 울릉도 부이 자료는 2012년도 신설로 인하여 해당년도부터 추가함.

▶ 최근 5년 및 2015년 6월 풍랑특보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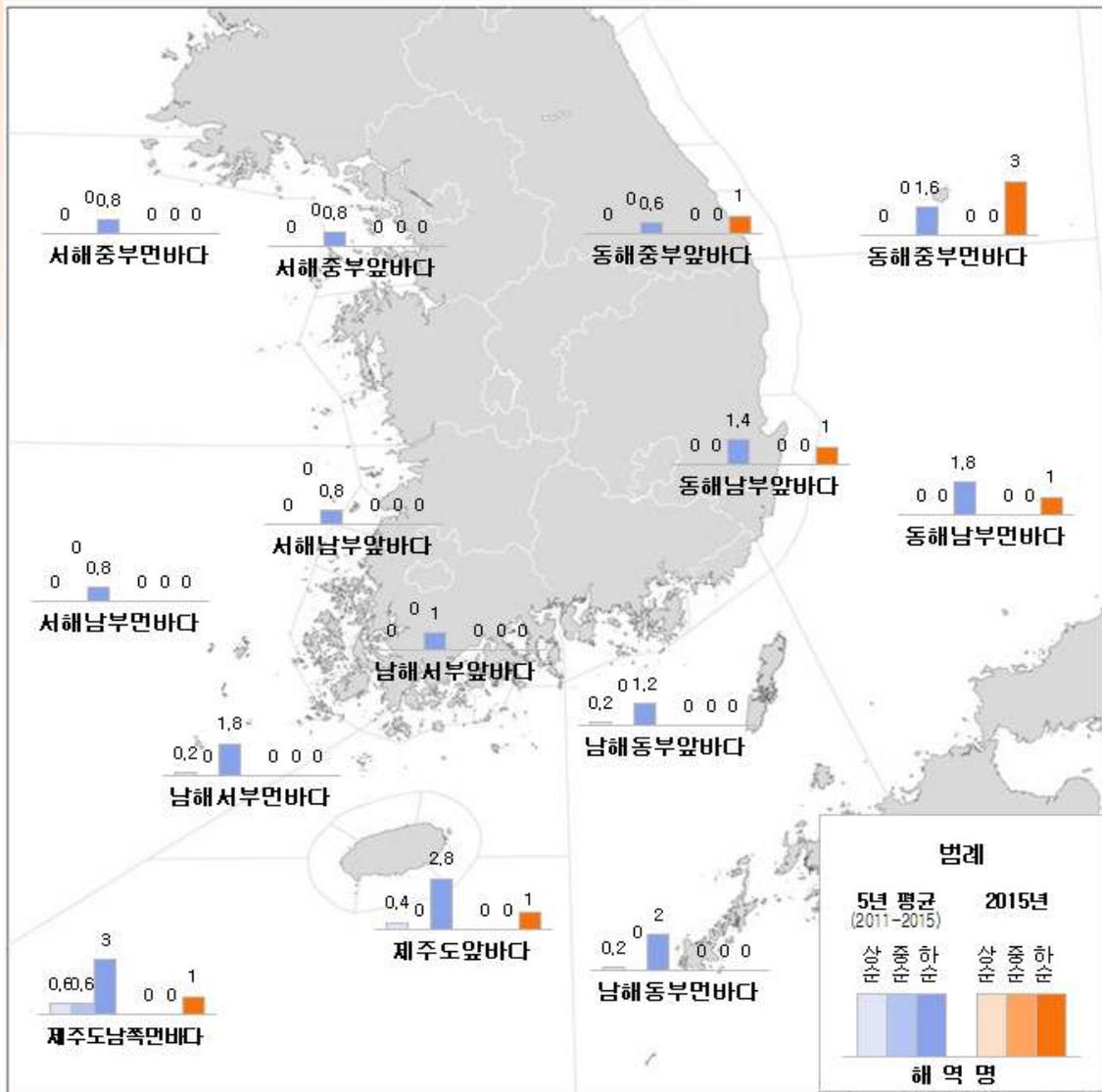


그림 2. 최근 5년(2011~2015년) 및 2015년 6월의 풍랑특보일수(상순, 중순, 하순)

최근 5년간(2011년~2015년) 6월의 풍랑특보 발표 일수는 평균 0.5일로 전월(5월 평균 1.2일)에 비해 감소하였음. 순별 특보 평균일수는 하순(1.5일)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상순(0.1일)이며, 중순(0일) 순으로 특보 일수가 나타났음. 지난해(2015년) 6월의 풍랑특보일수는 상순에 풍랑특보가 없어 최근 5년 평균 풍랑특보일수(0.1일)보다 적게 발표하였고, 중순의 풍랑특보일수는 0일로 최근 5년 평균 풍랑특보일수(0일)로 풍랑특보가 없었으며, 하순에는 풍랑특보가 0.6일로 5년 평균 풍랑특보일수(1.5일)보다 적게 발표하였음. 최근 5년간 6월에 풍랑특보일수가 가장 많았던 해역은 제주도남쪽 먼바다에서 총 1.4일로 발표하였으며, 동해중부앞바다에서 0.2일로 가장 적었음.

▶ 지난해(2015년) 6월의 해황

2015년 6월에는 서해상은 남동에서 남서풍 계열의 바람이, 남해상과 동해상은 북동에서 남동풍의 계열의 바람이 주로 나타났음. 풍속도 해역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전 해상에서 0.5~4.9m/s의 바람이 약 67.0%, 5.0~9.9m/s의 바람이 약 27.7%의 분포를 보였고, 10m/s 이상의 바람은 약 3.0%의 분포를 보였음.

앞바다에서 0.5~4.9m/s의 바람이 약 68.3%, 5.0~9.9m/s의 바람이 약 25.1%, 10m/s이상의 바람이 약 4.1%로 나타남.

2015년 6월의 해역별 바람 상세 특성은 다음과 같다.

해역		주풍계	풍속 분포(%)			
광역	국지		0.5~4.9	5.0~9.9	10.0~13.9	14.0≤
서해중부	앞바다	남동~남서	82.0	12.8	1.5	0.2
	먼바다	남동~남서	76.8	18.0	1.3	0.0
서해남부	앞바다	남동~남서	67.6	25.7	3.7	0.2
	먼바다	남동	79.8	16.2	0.1	0.0
남해서부	앞바다	남동	52.2	39.4	7.2	0.6
	먼바다	북동~동	64.6	31.9	1.6	0.0
제주도	앞바다	북동~남동	64.9	28.0	4.6	0.7
	남쪽먼바다	동~남동	53.4	42.5	2.0	0.0
남해동부	앞바다	북동~동	72.5	24.6	0.4	0.0
	먼바다	북동	64.3	31.7	2.9	0.0
동해남부	앞바다	북동	58.1	30.9	8.6	0.0
	먼바다	북동	61.8	34.3	3.2	0.3
동해중부	먼바다	북동~남동	58.6	37.9	2.3	0.5
전해상			67.0	27.7	2.8	0.2

작년(2015년) 6월의 해역별 파고분포를 살펴보면, 전 해상 2.0m 이하의 파고가 약 91% 이상으로 낮은 파고의 비율이 높았으며, 3m 이상의 다소 높은 파고의 비율은 동해상만 약 3.4%를 보였고, 다른 해상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음.

해역구분	파고분포(%)				
	<1.0m	1.0~1.9m	2.0~2.9m	3.0~4.9m	>=5.0m
서해상	93.8	6.0	0.2	0.0	0.0
남해상	75.1	23.3	1.6	0.0	0.0
제주도해상	72.4	27.5	0.1	0.0	0.0
동해상	71.1	20.1	5.4	3.4	0.0
전해상	79.3	17.5	2.2	1.0	0.0

▶ 6월은 해무의 계절, ⚡선박 안전운항 주의!!

해무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이류무는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찬 해수면 위를 지나갈 때 많이 발생하는데, 한류와 난류가 만나 수온차가 큰 해역, 따뜻한 남풍이 지속적으로 불어 용승 현상이 발생하면서 수온이 낮아진 해역(동해), 해상에 수온 전선대가 형성되고 이 전선대를 가로질러 바람이 부는 해역 등에서 수온과 대기온도 차이가 큰 경우에 주로 발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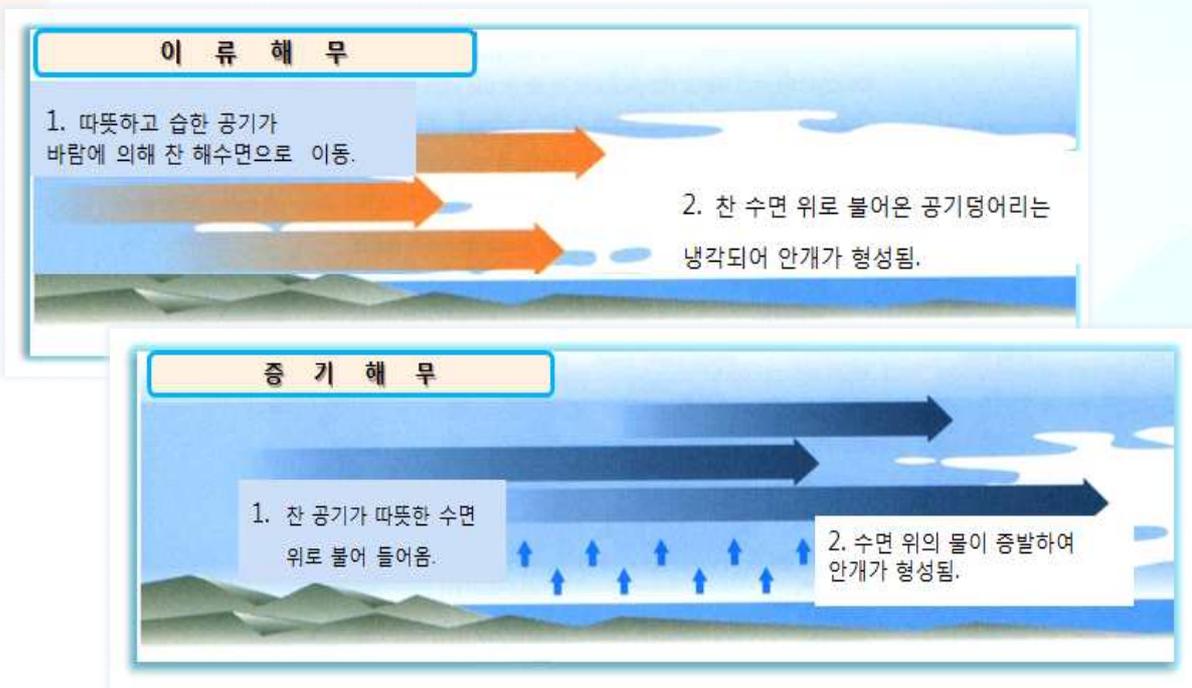


그림 3. 해무의 종류

여름철 해무는 남풍계의 바람이 4~6% 정도로 불고 있을 때 잘 발생하게 되고, 그 농도도 짙으며 지속시간 또한 비교적 긴 특징을 보임.

남해와 서해상에는 주로 6, 7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며, 장마기에는 짙은 해무가 낀. 특히, 남해의 다도해와 경기만은 해무로 인한 해난사고가 잦은 해역이므로 이곳을 운항하는 선박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해역별 해무특성

서해

바다 수온과 대기의 온도차에 의해 발생하는 이류무가 대부분으로, 3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장마철인 6월과 7월에 집중됨. 또한 남해와 동해보다 긴 지속시간을 보이며, 서해 중부와 남부에서 특히 많이 발생함.

남해

주로 하절기 몬순의 남서풍에 동반된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찬 해수면 위로 유입되어 발생하는 이류무나 증기무, 해안에서 발생한 복사무도 있음.

동해

주로 저기압에 동반된 전선에 의해 발생하는 전선무가 많음. 6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며, 이때 발생한 안개의 지속시간이 가장 긴 편임. 다른 해역에 비해 안개 지속시간은 짧으며, 울릉도를 비롯한 동해 중부에서 많이 발생함.

표 1. 해역에 따른 해무 발생시기 및 평균 지속시간

해역	서해	남해	동해
발생시기	3월부터 증가 6~7월에 집중	주로 5~7월	6월에 가장 많음
안개 평균 지속시간	10~150시간	7~8시간	1~3시간

해무 시 안전운항 수칙

바다에서 짙은 안개로! 인해 시정이 극도로 나쁜 경우에는 닻을 내리고 선박의 크기(규모)에 따라 약정된 국제 표준 신호음을 계속하여 발신하고, 안개가 걷힐 때까지 운항을 중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불가피하게 계속 운항하여야 할 경우에는



선박의 모든 등(라이트)을 켜고, 경적 또는 사이렌과 같은 음향 신호를 울려, 주위 선박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리며, 전방 경계 및 레이더를 이용한 철저한 감시가 필요함.

해양기상예보에 안개가 예보되어 있을 경우 또는 안개 발생 시 주변 항로 표지소(등대)에서 경보음이 울리면, 정박 중인 선박은 출항을 삼가야 하고, 연안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특히 주의하여야 함.

해무정보 이용하는 방법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에 들어오면, 상단메뉴의 ‘날씨’를 클릭하신 후에 ‘바다날씨’ → ‘위성안개관측정보’에 들어오시면 천리안위성에서 관측한 자료가 15분 간격의 새로운 안개영상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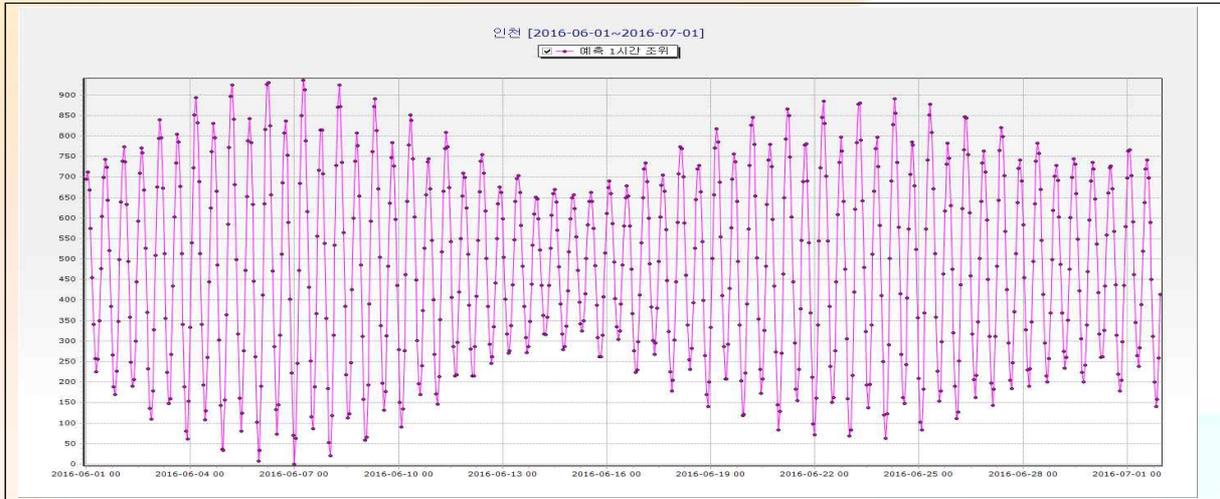
기상청 홈페이지 위성 안개관측 정보

▶ 2016년 6월 조석 예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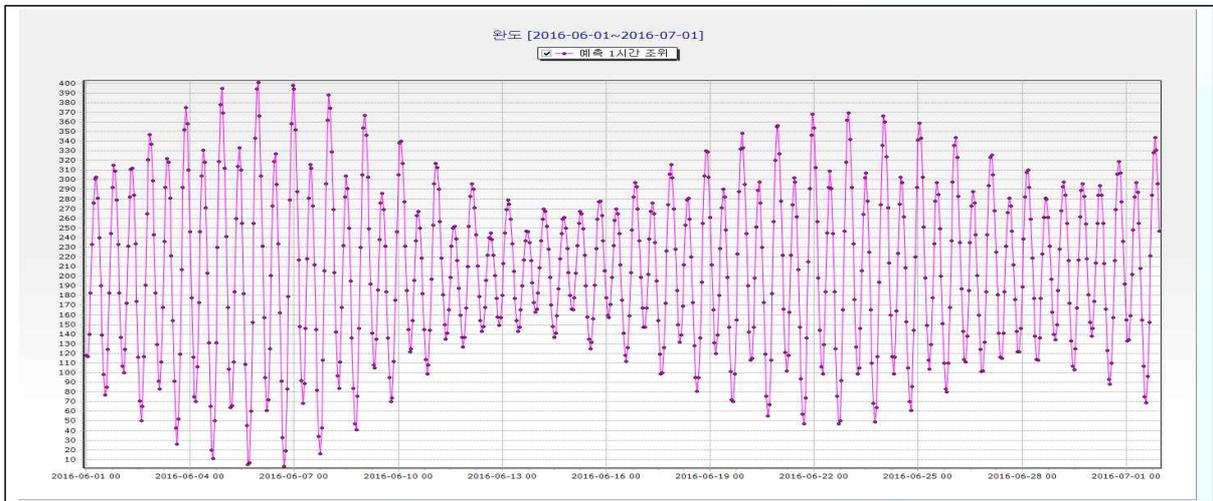
서해안의 인천은 6월 6일에 943 cm의 고극조위가 나타나며, 남해안의 완도는 6월 5일에 404 cm, 동해안의 포항은 6월 7·8일에 49 cm의 고극조위가 나타나겠음

해역	지역	대조기(삭 6. 5)		대조기(망 6. 20)	
		고극조위(cm)	발생시각	고극조위(cm)	발생시각
서해안	인천	929	04:44	848	04:42
	안흥	700	03:44	636	03:54
	군산	726	03:00	660	03:10
	목포	499	02:06	444	02:11
남해안	제주	299	23:19	269	23:14
	완도	404	22:39	360	22:32
	마산	209	21:20	188	21:07
	부산	135	20:51	123	20:39
동해안	포항	46	14:43	45	14:59
	속초	39	14:33	41	14:31
	울릉도	41	13:51	42	13: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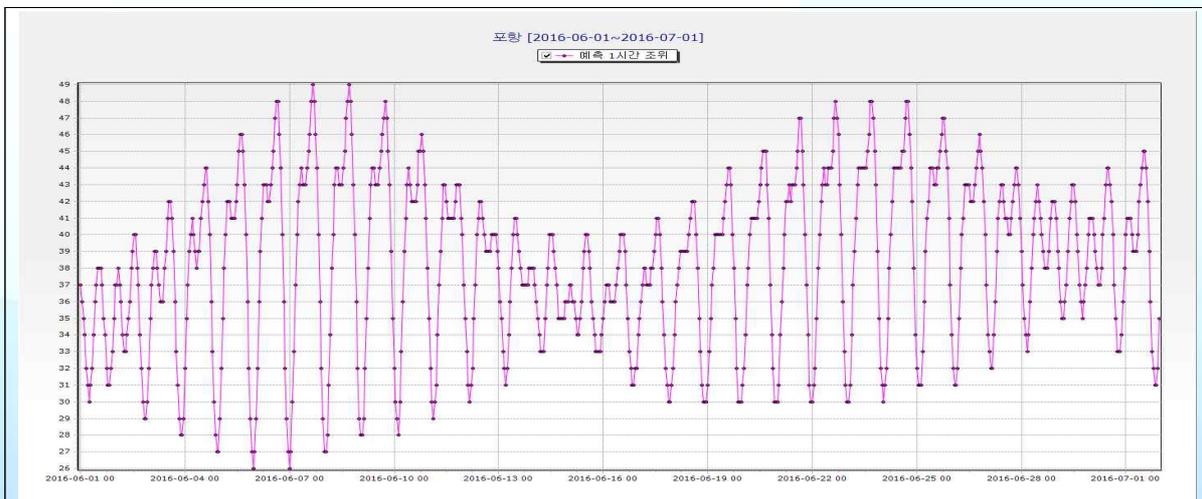
2016년 조석표(한국연안)는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www.khoa.go.kr), ARS(1588-9822), 조석예보앱(Android)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16년 6월 서해안 인천지역 조석예보 >



< 2016년 6월 남해안 완도지역 조석예보 >



< 2016년 6월 동해안 포항지역 조석예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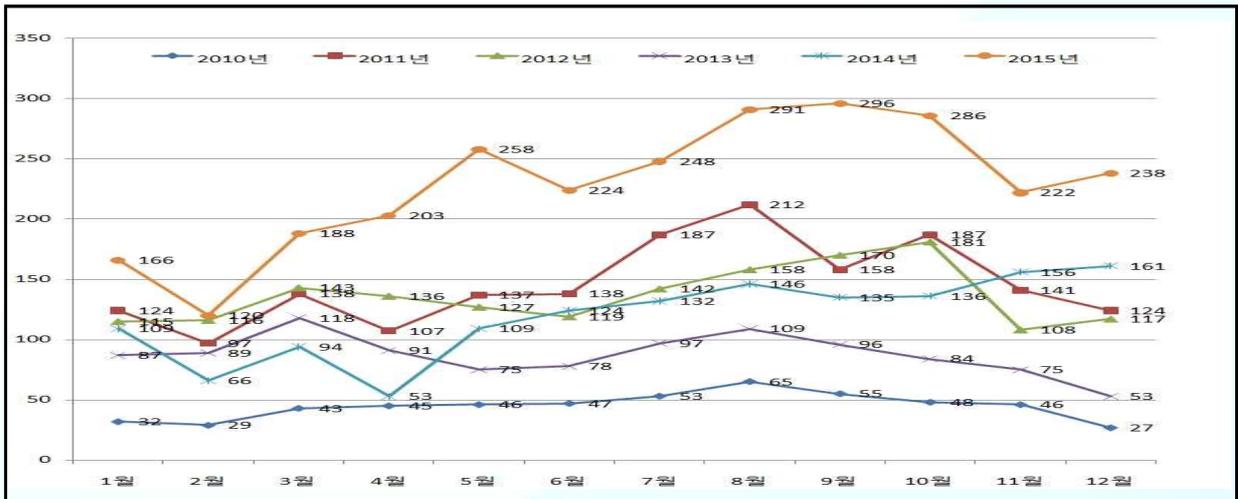
해난사고 현황 - 해양긴급신고 전화 122

□ 해양사고 통계 (최근 5년간, '11.1.1 ~ '15.12.31)

- 최근 5년 동안 선박사고는 총 8,592척(58,908명)이 발생하여 선박 8,255척(96.1%) 및 선원 58,074명(98.6%)이 구조되고, 선박 338척(3.9%) 및 선원 834명(1.4%)이 사망(623명)·실종(211명)되는 인명피해 발생

구분	발생		구조		구조불능		인명피해	
	척	명	척	명	척	명	사망	실종
계	8,592	58,908	8,255	58,074	338	834	623	211
2015년	2,740	18,960	2,639	18,848	101	112	77	35
2014년	1,418	11,180	1,351	10,695	68	485	396	89
2013년	1,052	7,963	1,015	7,896	37	67	48	19
2012년	1,632	11,302	1,570	11,217	62	85	64	21
2011년	1,750	9,503	1,680	9,418	70	85	38	47

○ 월별 선박사고 현황



○ 해양사고 현황(6월)

- 최근 5년간 6월의 해상조난사고는 683척으로 5월 706척 대비 약 3.2% 감소하였으며, 최근 5년간 사고 흐름을 보면 5~6월 이후 사고 급증 추세
- 주요 사고유형은 기관고장(216척), 충돌(82척), 침수·침몰(68척) 순으로 발생하였고, 주요 발생원인은 정비불량(236척)과 운항부주의(199척)임

해양 안전정보(6월) - 해양긴급신고 전화 122

- 선박 운항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필요
 - 본격적인 성어기로 많은 어선이 출어, 해양사고 발생 개연성 증가
 - 기온 상승으로 해양 활동자가 증가하여 사고 발생 유형 다양화 예상
- 사전 사고 예방 활동 당부
 - 조업지에서 휴식을 취하는 경우, 멀리서 인식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밝기의 등화 계양,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견시 철저
 - 선박 및 선원 안전을 위해 선단선 구성, 항해등, 조업 등 정박등 계양 및 항해장비 작동, 충돌의 위험 예상 시 사전 대피, 화재 예방 철저

해양사고 방지대책 - 해양긴급신고 전화 122

- 본격적인 행락철로 다수 시민이 승선한 여객선, 유도선 안전운항
 - 날씨가 가장 좋은 5~6월을 맞이하여 많은 사람이 바다를 찾음에 따라 해양사고 발생시 대형 인명피해 개연성이 높은 여객선, 유도선 안전운항 철저
 - 여객선, 유도선은 출항 전, 기관·선체 사전 안전점검 및 운항시 충돌 및 해상 부유물에 의한 추진기 및 타기 고장예방을 위해 견시 철저
- 본격적인 성어기로 출항전 기관 및 선체의 정밀 점검·정비 후 출항
 - 많은 어선이 출어함에 따라 사고 개연성이 증대하므로 안전조업 철저 및 타 선박의 인지를 쉽게 하기 위해 조업, 항해등, 조업 등 점등 철저
- 짙은 안개로 시야 확보 곤란 및 줄음운항 사고 예방을 위해 출어 및 조업 시 충분히 휴식(견시 철저)
 - 해상에 짙은 안개가 자주 발생하므로 선박 간 충돌 예방 및 어망 등에 의한 추진기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줄음운항으로 인해 자칫 대형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충분한 휴식 후 조업 또는 항해(조타실 당직자는 항상 배치)
- 1인 조업선은 안전조업을 위해 가급적 선단선 편성
 - 해상에서 침수 등 돌발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1인 조업선은 필히 조업해역 및 귀항 일시 등을 선박 출입항 기관에 통보하고, 선단선 출어
 - 상호 인지 가능한 해역에서 조업하고 해상 추락 또는 실종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구명동의 착용 철저
- 침수 및 충돌사고에 특히 주의
 - 6월은 대체로 기상이 양호하여 풍랑주의보 발효 횟수가 적은 시기이나 침수사고와 충돌사고가 빈번하므로 주의
 - 짙은 안개에 의한 해양사고가 증가하는 시기이므로 기적 등 무중항법 준수 및 조기에 피항

6월 해양사고 예보



제공: 해양안전심판원

6월에 주의해야 할 해양사고 및 예방대책

- ◆ **어선의 충돌사고**가 55건(96척)으로 **상반기(1~6월) 중 가장 많음**
 - 최근 5년간 어선 충돌사고건수 중 6월달이 8.6%(640건중 55건) 차지
- ◆ **접촉사고**가 17건(20척)으로 **연중 두번째로 많이 발생**
 - 선종별로는 어선이 35.3%(17건중 6건)로 가장 많고, 예·부선이 29.4%(17건중 5건), 화물선 29.4%(17건중 5건) 순으로 발생
 - 최근 5년간 월별 접촉사고 현황(2011~2015, 단위 건)

월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건수	11	7	7	12	6	17	10	24	14	10	9	8

6월 주요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

◆ 어선 충돌사고 예방

- (사고사례) 조업지로 이동 중인 어선이 정선한 채 낚시 중이던 레저보트와 충돌사고 발생, 레저보트의 우현 중앙부가 파손되고, 갑판 중간 부분이 깨짐
 - (개선방안) 1. 어군탐지기나 지피에스플로터를 보며 항해하는 어선은 경계에 소홀하기 쉬우므로 전방 경계 업무를 하는 다른 선원을 배치하는 등 전방경계를 철저히 해야 함
 - 2. 레저보트는 기동성이 양호하므로 의심 가는 선박이 접근시 적극적으로 피항협력 동작을 취하여야 함

◆ 예·부선 접촉사고 예방

- (사고사례) 선박구조물이 적재된 부선을 접현하여 예인하던 예인선이 항해 중 강한 북동풍의 영향 등으로 부선의 우현 선미부가 등부표에 접촉
 - (개선방안) 예인선이 부선을 접현한 상태로 결합하여 예인할 때에는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부선의 조정 특성을 고려하여 주의해서 조선하고, 부선의 상갑판에 적재된 화물 때문에 시정이 제한되는 것을 감안하여 부선의 앞쪽에 경계원을 배치한 후 수시로 전방 상황을 확인하여야 함



★ 6월의 예상 수온

6월의 연안 수온은 동해가 15~21℃ 분포, 남해 18~22℃ 분포, 서해 18~24℃ 분포로 동·서·남해 모두 평년에 비해 1℃ 내외의 고온현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 동해 : 15~21℃ 분포
- 남해 : 18~22℃ 분포
- 서해 : 18~24℃ 분포

▶ 지난달 수온 분포

5월의 연안수온은 월평균 12.6~18.5℃ 범위로 분포하였음. 동해연안은 12.6~15.3℃, 남해연안은 15.8~17.5℃, 서해연안은 13.8~18.5℃의 분포를 보였음.

인공위성 자료로 분석된 한반도 주변 해역의 4월 표층 수온분포는 동해 연근해역은 13~17℃로 평년(11~16℃)에 비하여 1~2℃ 범위의 높은 수온분포를 보였고, 남해 연근해역은 15~20℃로 평년(14~18℃)에 비하여 1~2℃ 범위의 높은 수온분포를 보였으며, 서해 연근해역은 13~15℃로 평년(9~14℃)과 비슷한 수온분포를 보임.



5월의 주요 어종별 어황을 살펴보면 말쥐치, 꽁치는 평년비 순조로웠으나, 갈치, 멸치, 살오징어는 평년수준이었으며, 고등어, 전갱이, 참조기는 평년비 부진

6월에 들면 대형선망어업은 고등어, 전갱이, 눈통멸 등을 대상으로 대마난류의 흐름을 따라 제주 남부해역에서 대한해협 멸치어업은 대마난류를 따라 봄철 산란을 위해 북상회유하는 어군을 중심으로 남해동부 및 동해남부 연안역에서 중심어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며, 근해안강망어업은 황해연안냉수와 황해 난류 사이에 형성되는 수온전선대를 따라 서해남부해역의 가거도~추자도에서

아귀류, 양태류, 참조기 등의 분포 밀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 하순으로 접어들면서 연근해의 수온 상승과 함께 중심어장이 점차 북쪽으로 확장될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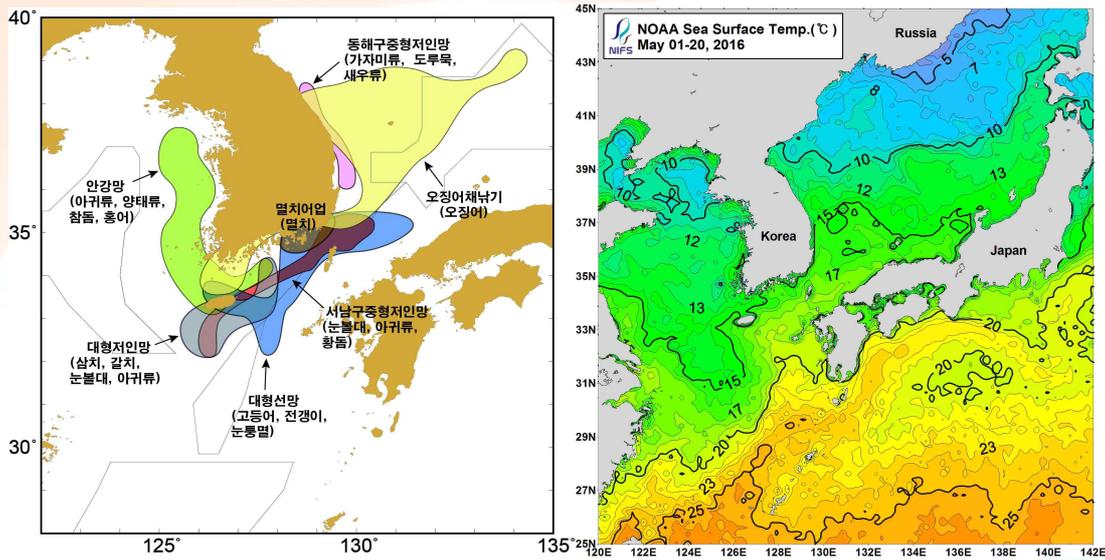


그림 4. 광역 수온 분포(위성) 및 어업별 예상어장도(6월)

고 등 어	대마난류 세력의 영향을 받는 제주도 주변해역 및 동해남부해역에서 중심어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월동장인 동중국해역으로부터 난류세력을 따라 어군의 북상회유가 이루어지겠으나 내유량의 감소로 분포밀도는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
살오징어	근해채낚기어업과 연안복합어업이 금어기를 끝내고 조업을 재개하겠으며, 6월 중순까지는 동해연안해역과 울릉도 주변해역에서, 하순 이후에는 동해 전해역에서 어장이 형성되어 여름철 어기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 전체적인 어황은 어기가 시작되는 시기이므로 어군 밀도가 높지 않아 평년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멸 치	권현망어업의 금어기(4~6월)가 지속됨에 따라 자망어업에 의해 남해도 주변해역과 동해남부 기장해역에서 산란 회유하는 어군을 대상으로 조업이 이루어지겠으며, 전체적인 어황은 평년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갈 치	남해 전해역과 서해일부해역에서 중심어장이 형성되겠으며, 어장으로의 내유량이 서서히 증가하는 시기로 전체적인 어황은 평년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
참 조 기	서해남부와 제주도 주변해역에서 어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나, 전체적인 어황은 한어기에 접어들면서 어군밀도가 높지 않아 평년비 부진할 것으로 예상
기 타	꽁치, 말쥐치는 4월~5월에는 전년대비 높은 어획량을 보였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의 자원량을 유지하고 있어, 순조로운 어황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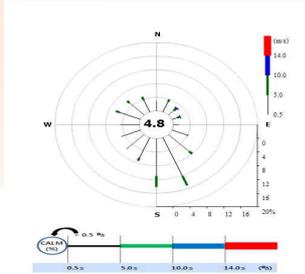
해파리 동향

5월에 약한 독성의 보름달물해파리가 평년에 비해 높은 빈도로 동서·남해 연안에 출현하였고, 일부 해역은 밀집 출현하였음. 강독성의 노무라입깃해파리는 5월 중순부터 제주 연안역에 소량 출현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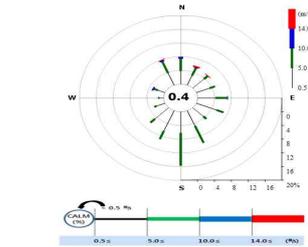
약독성의 무희나선꼬리해파리가 5월에 경남 일부해역(창원 잠도 연안)에서 소량 출현하였고, 강독성의 야광원양해파리는 5월 부산 일부해역(기장 근해)에 소량 출현하였으며, 오이빃해파리는 경북 일부해역(경북 포항 영일만 연안)에 소량 출현하였음.

6월에는 동·서·남해에서 보름달물해파리 출현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남해 및 동해 근해역에서 노무라입깃해파리가 출현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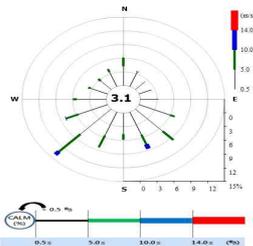
6월의 해상풍(해양기상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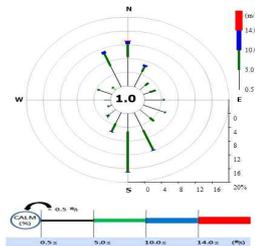
덕적도(서해중부면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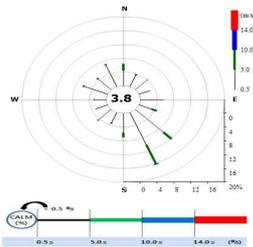
울릉도독도(동해중부면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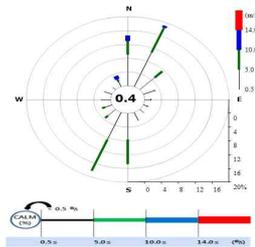
외연도(서해중부면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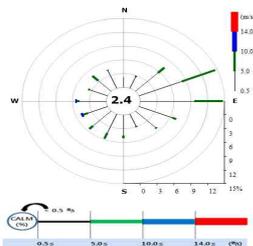
동해(동해중부면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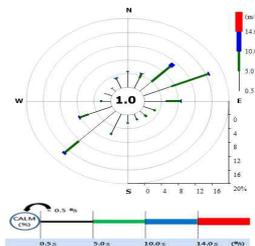
칠발도(서해남부면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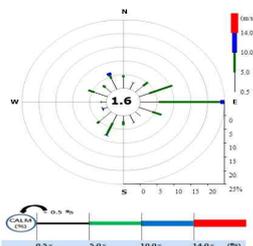
포항(동해남부면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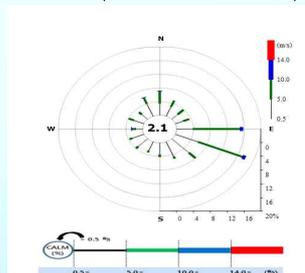
거문도(남해서부동쪽면바다)



거제도(남해동부면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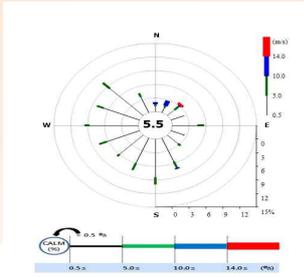
추자도(남해서부서쪽면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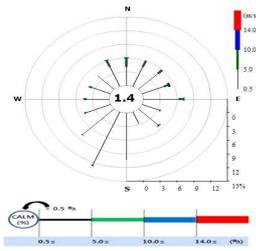
마라도(제주도남쪽면바다)

그림 5. 해양기상부이 관측 해상풍('15년 6월, 바람장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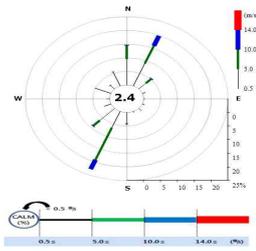
6월의 해상풍(등표기상관측장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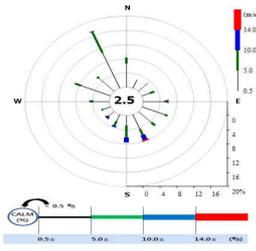
서수도(서해중부앞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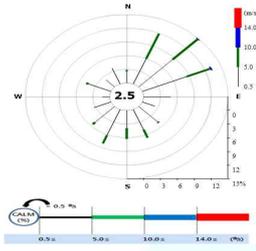
가대암(서해중부앞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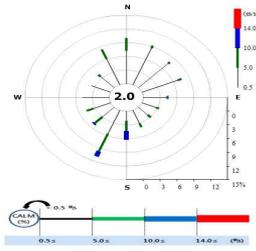
이덕서(동해남부앞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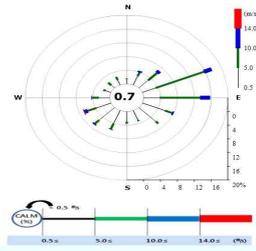
십이동파(서해남부앞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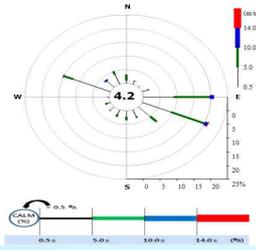
광안(남해동부앞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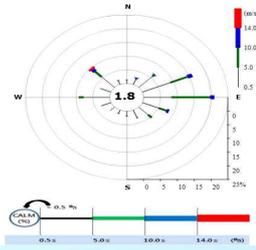
갈매여(서해남부앞바다)



간여암(남해서부앞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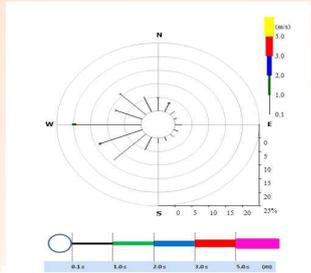
해수서(서해남부앞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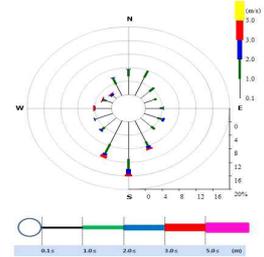
지귀도(제주도 앞바다)

그림 6. 등표기상관측장비 관측 해상풍('15년 6월, 바람장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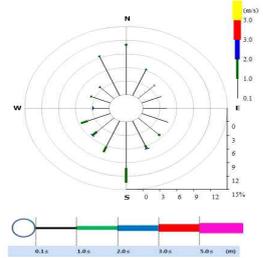
6월의 파랑(해양기상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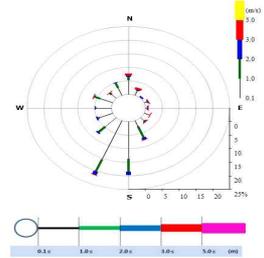
덕적도(서해중부면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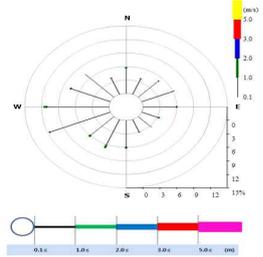
울릉도독도(동해중부면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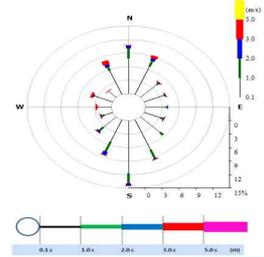
외연도(서해중부면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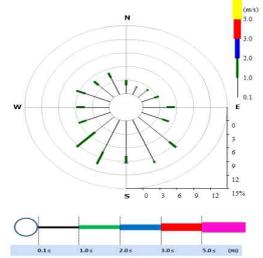
동해(동해중부면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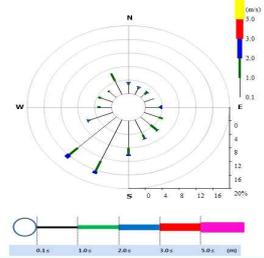
칠발도(서해남부면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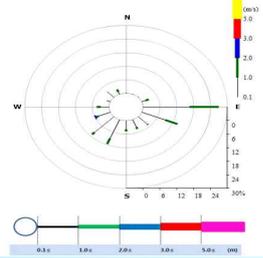
포항(동해남부면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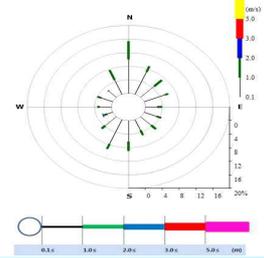
거문도(남해서부동쪽면바다)



거제도(남해동부면바다)



추자도(남해서부서쪽면바다)



마라도(제주도남쪽면바다)

그림 7. 해양기상부이 관측 파랑('15년 6월, 파랑장미)

【참고자료 2】

▶ 6월의 주요 해양사고일지

일 시	선 명	피 해	사 고 원 인
'15.6.21 04:21	백**호 (낚시어선, 승선원 10명, FRP선)	10명 부상 선체파손	야간항해 중 항계 내 과속운항으로 정박 중이던 부선 101명성호를 발견치 못하고 충돌 ※ 당시기상 : 남서풍, 4~6m/s, 파고 1m, 연무
'15.6.26 07:50	신**호 (근해안강망, 어선 69톤, 승선원 8명)	침몰	선내 고박불량으로 운항 중 닻이 한쪽으로 쓸려 선체 복원력 상실로 침몰 ※ 당시기상 : 동풍, 2m/s, 파고 2-2.5m

